

# 基督敎의 傳來와 韓國文學

蘇 在 英\*

- |                     |                       |
|---------------------|-----------------------|
| I. 머리말              | V. 聖書翻譯과 語文學의 발달      |
| II. 基督敎의 수용과 저항     | VI. 洪吉童傳·春香傳의 기독교적 시각 |
| III. 基督敎에 대한 비판적 이론 | VII. 開化期 文學과 기독교      |
| IV. 基督敎의 전래작품들      | VIII. 맺는말             |

## I. 머리말

기독교가 이땅에 전래된 역사는 이백년이 넘는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수용 문제를 다룬 논문들은 수없이 많다. 오늘날까지는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 일로에 있으므로 이를 수용사적 측면에서 다룬 글들은 많지만, 이들 대부분이 역사 또는 종교사적 입장에서 씌어진 글들이며, 기독교문학의 시점에서 씌어진 글은 그리 많은 편이 못된다. 게다가 이러한 글의 대부분이 종교적 편파성을 띤 것들이어서 본격적 문학론의 입장에서 비판되고 기술된 글들은 지극히 적은 실정이다. 흔히 <기독교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독교문학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치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이땅에 수용된 후 수다한 박해와 수난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그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창작된 작품, 또는 수용적 관점에서 창작된 작품들도 수없이 많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창작된 작품들, 순교사적 또는 사회교회적 입장에서 씌어진 다양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상이 새롭게 수용되면서 창작되어진 문학작품들 가운데는 의식적으로 종교적 색채는 띄지 않았지만 시대적 상황으로 미루어 기독교문학의 입장에서 다루어 볼만한 작품들도 많이 있다. 개화기에 이르면 문학작품들이 구체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띤 작품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며, 현대문학의 제 장르 가운데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작품의 주제성과 결부되어 기독교문학이 전체 문학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된다.

---

\* 人文大學, 國文科 教授

필자가 논술할 한계는 <기독교의 전래와 한국문학>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땅에 기독교(서학)가 전래되어온 과정을 소상하게 검토하여 보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겪게 되는 수난의 과정뿐 아니라 이른바 서학비판론자들의 입장과 서학옹호론자들의 입장, 그들의 주요 논쟁점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기술한 문헌자료들에 대한 검토를 앞세우려 한다. 본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은 이와 관련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자료들에 대한 소개와 검토가 중심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 경전인 성서의 번역, 찬송가의 창작 전승과정을 통하여 기독교가 한글문화의 발달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우리 문학에 기독교사상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 고전소설인 홍길동전·춘향전을 모델로 제시하여 이들 작품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필자가 분담한 한계가 여기까지이므로, 이를 통시적으로 기술하고, 다음은 개화기문학과 기독교에 대하여 토론적 논술을 끝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基督教의 수용과 저항

### 1. 기독교의 수용

기독교가 이땅에 전래된 연원을 소급하면 景敎의 전래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이 시기는 문헌상의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는다. 기록상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小西行長을 따라 전도의 목적을 띠고 입국한 포르투갈 신부 세스페데스(Cespedes)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세스페데스는 1593년 12월 28일 경남 곱내(熊川·鎭海)에 상륙하여 조선땅에 첫발을 디게 되는데 약 반년동안 전도활동을 하여 그간에 코메즈교구장에게 보고한 친필의 편지가 현재 포르투갈 아주따고서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세스페데스를 통하여 직접 전도를 받았다는 조선인의 기록은 없고, 다만 전쟁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중 영세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은 상당수에 이른다고 한다.<sup>2)</sup>

조선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서양선교사와 접촉한 최초의 인물은 鄭斗源(1581~?)이라 할 수 있다. 정두원은 당시 후금이 조선과 명나라의 통로를 차단하였으므로 1630년(인조8) 항로를 통하여 淸州에 상륙하고 耶蘇會士 로드리게즈(Roderigues·陸若漢)를 만난다. 그는 당시 방위군 지휘관이었던 孫元化의 군사교문으로 주재하고 있으면서 紅夷砲의 제작과 조작에 익숙하여 그와 교제하는 동안 홍이포의 기술을 습득하고 서양의 종교, 천문, 易法 지리의 지식을 습득하고, 홍이

1) 閔庚培, 일본침략군과 함께 스쳐간 기독교, 《韓國基督教會史》,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9.45. 편지 내용은 山口正之의 《朝鮮 그리스도교의 文化史的 研究》 전문 수록.

2) 달레, 倭亂과 朝鮮人피납자의 입교, 《韓國天主教會史》上(안응렬·최석우역) 분도출판사 1979.

포·千里鏡·自鳴鍾 등을 비롯하여 天文書(利瑪竇)·職方外記(艾儒略) 天問略(陽瑪諾) 西學凡·坤輿萬國全圖 등의 서적을 얻어 가지고 들어온다. 당시 정두경의 역관이었던 李榮後와 로도리게즈 사이의 왕복 서간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天主學을 이단시하는 중국인의 습속을 논술하고 있는 대목이 보이며, 정두경 자신도 직방외기·서학범등의 수입과 연관해 볼 때 기독교(西學)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sup>3)</sup>

초기 기독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昭顯世子の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병자호란(1636) 때 봉림대군·인평대군과 함께 瀋陽에 잡혀가 8년여의 억류생활을 보낸 기록은 瀋陽日記에 자세하게 남아 있다. 그후 청이 국도를 북경으로 옮기자 소현세자도 북경으로 옮겨 文淵閣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그는 독일신부 아담 샬(Adam Schall·湯若望)과 교제하여 기독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당시 소현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편지(1672·독일)에 의하면 소현세자는 天主像·天球儀·天文書 등을 선물로 받은 기록이 보이며, 洋學書籍과 天主像을 고국에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마는 돌아가 異端邪教로 지목되어 천륜의 존엄함을 모독할까 염려되며 과실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天主像만은 다시 돌려드린다는 간곡한 내용의 편지 귀절을 읽을 수 있다.<sup>4)</sup> 소현세자가 기독교신자인 환관들을 대동하고 귀국한 것은 1645(인조 23) 2월 18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귀국 후 3개월만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환관들은 모두 청국으로 추방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보면 소현세자는 기독교를 조선땅에 수입한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죽음도 당시의 정치형세를 감안할 때 당쟁과 더불어 배교적인 분위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sup>5)</sup> 그의 편지 가운데서 “천주상은 이것을 벽에 걸어놓고 보면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을 씻어내는 것같아서 여러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라고 한 대문에서 보면 소현세자는 이미 당시에 기독교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기독교의 전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마테오리치(Matteo Ricci·利瑪竇)의 《天主實義》가 아닌가 생각된다.

- 1 편 : 천주가 처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주재하고 양양함을 논함.
- 2 편 : 사람들의 천주 오인에 대한 해석.
- 3 편 : 영혼의 불멸과 동물과의 큰 차이를 논함.
- 4 편 : 귀신과 영혼의 차이와 천하만물이 일체일 수 없음을 해석함.
- 5 편 : 윤회 및 살생금지설의 오류를 변박하고 재소의 정의를 설명함.

3) 崔東熙, 西學의 형성과 유입 《西學에 대한 한국실학의 反應》,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참고.

4) 山口正之, 王子 昭顯世子和 아담샬 《朝鮮 그리스도교의 文化史의 研究》, 御茶水書房 1985. pp. 37~42.

5) 黃良秀, 昭顯世子, 《韓國基督教文學의 形成研究》, 中大大學院 박사논문 1988.

6편 : 뜻이 없을 수 없음을 해석하고 아울러 사람이 죽은 뒤 천당과 지옥의 상벌이 있어 사람들 소행의 선악에 대한 보상을 논함.

7편 : 인성의 본선을 논하고 천주교도의 정학을 논함.

8편 : 서양 풍속을 들어 신부 불혼의 뜻을 논하고 아울러 천주가 서토에 강생함을 해석함.

마테오리치는 1595년 南昌에 있을 때 천주실의(상·하) 2책을 저술하여 북경에 들어간 후 1601년과 1603년 이를 재간행하였다.

마테오리치는 서구의 정신문화로는 중화사상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민족의 사상과 생활에서 유리될 수 없는 이른바 중국의 예속에 허용된 동양적 기독교 교의서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천주실의를 저술하였는데, 李瀾은 이미 《天主實義》의 跋文을 써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천주실의가 마테오리치의 저작임을 말하고, 만력 년간에 艾儒略·畢方濟·龐迪我等과 함께 중국에 건너와 포교한 사실을 예찬하며 天主가 유가의 上帝나 불가의 釋迦와 같음을 말하고, 천당과 지옥으로써 권징을 삼고 예수의 탄생과정을 설명한 후 1603년을 경과한 세계종교인 것을 역설하며 천주와 천당·지옥의 미래설에 대해서는 실증이 없음을 들어 부정하고 있다.<sup>6)</sup>

芝峰 李晬光(1563~1628)은 북경길을 세 차례나 내왕하였다. 첫번째는 李山甫의 서장관으로 명 神宗의 탄생 축하사절로(1580), 두번째는 尹繼善과 함께 진위사절로(1587), 세번째는 동지사부사(1611)로 내왕한다. 천주실의의 간행이 1601년이니 서학에 관심이 깊었던 이수광이 이무렵 《天主實義》를 접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마테오리치는 이미 1610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상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봉유설을 보면 마테오리치는 《天主實義》2권을 저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천주가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시며 모든 만물을 기르는 도에 대하여 말하였고, 둘째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하며 금수와 크게 다르다는 점, 다음 천당과 지옥에 대한 것과 선과 악의 보응을 설명한 다음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천주의 뜻임을 설명하고 있다.<sup>8)</sup> 한편 柳夢寅(1559~1623)도 기독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일본에 기리시단교(倭利但)가 들어온 과정을 말하고, 북경에 와 있던 마테오리치의 선교활동과 세계지도의 제작에 대하여서는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의 저술 《於干野譚》(1621) 가운데는

許禱到中國 得其地圖及 偈十二章而來<sup>9)</sup>

6) 마테오리치, 《天主實義》(이수웅역) 분도출판사 1984.

7) 李瀾, 《天主實義跋》(星湖集), 이승훈《蔓川集》참고.

8) 李晬光, 《芝峰類說》(景仁文化社).

9) 柳夢寅, 《於干野譚》(萬宗齋本) 卷2 西教條.

라 하여 허균이 중국에 건너가 지도와 傷 12章을 얻어 돌아왔다고 하고 있다. 여기 <傷>는 당시의 주기도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의 전면에는 ‘尊此道’라 하여 허균이 기독교를 신봉했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朴趾源(1737~1805)도 그의 《燕岩集》가운데서

許筠之使中國 得其偈而來 然則 邪學之東 蓋自許筠而偈始也<sup>10)</sup>

라고 하여 於于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기독교가 허균으로부터 비롯함을 말하고 있다. 유몽인은 이수광 보다 앞서 明使 朱之藩을 만난다. 그때의 상황으로 보아 《天主實義》를 얻어 읽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는 기독교가 유불선교와 다름을 말하고 천주실의를 논급함과 아울러 동북아로 전파되어 마침내는 허균에 의해 소개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도의 그릇됨을 탄하여 세상을 미혹케 함이 죄됨을 논술하고 있다.<sup>11)</sup> 이수광과 유몽인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기독교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 태도로 논술하고 있으나, 후자는 세상을 미혹케 하는 오랑개의 도임을 비판적으로 말하고 있음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다. 허균이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신자였으리라는 추정은 이미 연구자들의 문헌적 뒷받침을 얻고 있다. 이점은 일찌기 이수광도 《지봉유설》에서 허균이 총명하고 문장에 능하였으며 그의 글때문에 문도가 된 자들이 하늘의 학설을 외쳤는데, 실은 서쪽땅의 학이었다 라고 하여 허균의 신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安鼎福(1712~1791)의 順菴集에도 고금을 통하여 하늘의 학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옛적에는 추연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허균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sup>12)</sup> 허균은 북경을 세번이나 다녀 왔다. 1597년에 처음 들어갔으며, 1614년 천추사가 되어 다녀왔고, 1615년 동지점 진주사부사가 되어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기도 하였다. 그는 또 많은 돈을 미리 준비하여 가서 돌아올 때는 4천여권이나 되는 책을 사서 돌아 왔다고 하였으니 그 가운데는 기독교와 관련되는 서적이 상당수 있었으리라 추정되며, 광해군 때 허균이 <七克>을 구입하여 왔다는 기록이나 그가 <乙酉朝天錄>을 기록하였으나 후대에 실전이 된 이유를 추측하는 등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허균이 기독교에 몰두한 심증을 잡기에 충분하다.<sup>13)</sup>

## 2. 기독교의 저항

허균등에 의해 이땅에 전래된 기독교는 영조 말엽부터는 당시 정권에서 물러난 남인 李蘄·

10) 朴趾源, 燕岩集 卷2 (景仁文化社 영인본) 1974.

11) 黃良秀, 기독교의 수용과 배척 (앞책) pp.1914. 참고.

12) 安鼎福, 天學考, 《順菴文集》.

13)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付家貨購得書籍 幾四千餘卷. 光海時 許筠購來七克篇 (許筠 閑情錄 凡例條)

權日身·李家煥·丁若鍾 등에 의해 신봉되기에 이르렀으며, 李承薰이 북경에 들어가 그라몽(Grammont)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온 후(1783)로는 본격적인 교회활동이 시작된다. 당시 당쟁에서 밀려나 영달의 길이 막혀버린 남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침체된 주자학에 염증을 느낀 젊은 계층이 이에 적극 가담하였을뿐 아니라 중인계층까지도 점차 가담하여 신앙의 기반이 더욱 확충되어 갔다. 신앙운동이 점차 표면화하자 조정에서는 적극 종교탄압의 기치를 내걸고 여러 형태의 박해와 탄압을 일삼게 되었다.

**신해교난(1791·정조 15)**… 일명 진산사건. 이해 들어 전라도 진산에서 尹持忠·權尙然이 기독교 신앙운동을 실천한다 하여 조상의 神主를 불사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들은 결국 悖倫外道 或世誣民의 죄목으로 처형되며, 이승훈 권일신 등이 유배되고 수많은 양서 종교서적들이 불태워진다. 이후로 상신 체제공을 중심한 소위 信西派와 이에 반대하는 흥낙안 등 소위 攻西派가 대립하여 암투가 계속된다.

**신유교난(1801·순조 1)**… 벽파와 시파의 대립사건. 신해교난 이후에도 청나라 周文謨 신부의 영입등 교세가 점차 확장된다. 정조 재위 시에는 남인 시파의 등용이 늘어나고 기독교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으나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대왕대비(영조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면서는 정권이 벽파의 손으로 넘어가 기독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 가해진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사건 때 궁중을 어지럽힌 김구주의 누이동생으로 벽파편의 인물이다. 정순왕후는 이 시파·벽파의 봉당싸움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를 기독교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이리하여 이승훈·정약종·최필공은 참수되고 이가환·권철신은 옥사하며 정약전·정약용이 각각 흑산도·강진으로 유배된다. 신도 강완숙의 집에 잠입하여 明道會를 통해 활약하던 주문모신부도 이때 처형된다. 천주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신앙으로 절대왕권에 도전하였다는 것이 당시 기독교도들의 죄목이다. 이해가 辛酉年이므로 신유사옥 또는 신유교난이라 한다.

**기해교난(1839·헌종 5)**…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이 북경에 들어가 낸 선교사목의 실현요구가 파리 外邦傳教會에 알려져 1831년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 독립되면서 프랑스 브뤼기에르(Bruguière)가 초대주교로 임명된다. 그러나 그는 떠난지 4년만에 만주에서 죽고, 1837년 역시 프랑스 모방(Maubant)·앙베르(Imbert)·샤스탕(Chastan)이 서울에 잠입하여 교세를 넓혀간다. 조정은 이들의 선교활동에 충격을 받아 또한번의 숙청이 휘몰아 간다. 이지연의 사교금압 주청이 헌종의 모후 풍양조씨 척족을 충동하여 대학살극이 벌어지는데, 이에 세 선교사도 새남터 형장에서 군문효수의 극형을 받고,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던 조선인 최초의 신부 金大建도 이때 순교자가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헌종은 斥邪論을 발표하여 기독교가 망국의 사교임을 천명한다.

**병인교난(1866·고종 3)·신미교난(1871·고종 8)**… 고종이 즉위하고 대원군이 실권을 장

악하면서 서양 여러나라들의 통상 요구를 거절하고 쇠국하려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기독교 만연의 공포 때문이었다. 고종 초년의 신도수가 2만3천명이라는 공식 통계가 나와 있다. 처음은 다소 관용적 태도를 보였으나 조두순 일파의 배외정책에 휘말려 1866년에는 대원군에 의해 기독교 탄압의 포고령이 선포되자 9명의 선교사를 필두로 8천여명의 교도가 학살된다. 선교사 살해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된 불탄서함대의 강화도 침입, 소위 병인양요는 천주교 탄압이 그 도화선이다.<sup>14)</sup>

한편 그로부터 6년 후 미국상선 제네럴서먼호가 평양에서 불탄 후 로저스 함대가 조선을 위협하는 신미양요로 이어지는데, 미국함정의 향도가 기독교도이며 내통자가 기독교도라는 정보에 따라 또한번의 숙청이 빚어진다. 이것이 신미교난 이다. 대원군의 척화비문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의 강한 목소리는

패섬하다 서양되놈 무군무부 천주학을 네나라나 할것이지 단군기자 동방국에 충효윤리 밝았  
나니 어허감히 여허보자. 興兵加海 나왔다가 防水城 불에타고 鼎足山城 총에 죽고 남은목  
숨 도생하자 바빠바빠 도망한다. <sup>15)</sup>

라한 신재효의 판소리 대문에서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거듭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비록 수많은 선교사 종교 지도자 신도들이 순교당하는 사태가 이어지지만 그럴수록 신앙은 더욱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장차 기독교 사상이 이땅 위에 활짝 꽃피게 될 토양을 조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기독교적 신앙을 담은 문학작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다.<sup>16)</sup>

### Ⅲ. 基督教에 대한 비판적 이론

#### 1. 慎後聃·安鼎福의 비판

기독교는 수용과정에서 많은 비판적 이론에 부딪히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신후담(1702~1761)의 <西學辨>과 안정복(1712~1791)의 <天學問答>을 들 수 있다. 앞서 이익은 <天主實義跋>을 썼는데 여기서는 마테오리치의 책불을 비난하면서 천주학을 불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14) 柳洪烈, 《한국천주교회사》 카톨릭출판사(상·하)

15) 姜漢永, 《申在孝판소리 전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66. <옛심한 西洋되놈>

16) 줄고, 한국문학사상과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1987.p.94.

천주는 유가의 상제, 불가의 석가와 같으며, 천당지옥설도 불가의 윤회설과 다름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 이론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신후담 안정복은 구체적 비판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1) 신후담의〈서학변〉

신후담은 자를 耳老 호를 河濱이라 하였다. 그의 저술〈西學辨〉은 명대 중국에 와서 활동한 예수회 신부들의 저술〈靈言蠡勺〉·〈天主實義〉·〈職方外記〉의 교리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서학변〉의 저술연대는 23세(1724)때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테오리치의 “천주가 천지만물을 주재한다”는 말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주장은 철저히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불멸하여 착한 일을 하면 천당을 간다”는 〈영언려작〉을 들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 〈천주실의〉를 들어, “천당과 지옥이 있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불가의 설이라고 설명하며, 〈적방외기〉를 비판하여 서학의 논리는 유교적인 것을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서학을 이단으로 깨닫지 못하여 화를 입을 까 염려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익의 서학 이해와 궤를 같이한다.<sup>17)</sup>

### 2) 안정복의〈천학문답〉

안정복은 자를 百順 호를 順菴이라 하였으며 〈천학문답〉은 72세 때의 저작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서학을 천학이라 불렀으며 그와 가까운 소장들이 본격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천학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점이 서적만으로 서학을 알게된 신후담과 다르다 할 수 있다. 그는 천주의 존재와 주재를 시인할뿐 아니라 천주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천주와 태극의 이치가 같다고 봄으로써 성리학의 이기설을 고집한다. 그리고 서학의 영혼불멸설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영혼도 기의 작용이므로 기가 흩어지면 자연 영혼도 소멸된다고 믿고 있다.<sup>18)</sup>

신후담과 안정복은 당시 본격적 서학비판의 이론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결국 천주의 존재와 주재를 시인하면서도 이론상 성리학의 이기설을 고집하고 있다. 신후담은 천주도 이와 기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천주의 권능을 부정하고 있으며, 안정복도 천주를 태극의 이와 같이 보아 천주의 이지적 섭리를 부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학에 대하여 깊은 지식과 조예가 있어 겉으로는 서학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이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적지 않다. 이점에서 이들의 학문세계는 서학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측면도 없지 않다. 안정복이 권

17) 洪以燮, 실학의 이념적 일모, 河濱 慎後聘의 西學辨 소개, 人文科學1집 연세대 인문과학 연구소, 1957.

18) 李元淳, 安鼎福의 天學論攷, 《이해남박사 회갑기념 실학논총》, 1970.



철신에게 보낸 편지에는 서학을 비뚤어진 행동으로 보고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장차 다가올 박해가 크게 염려된다고 하고, 우의정 채제공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재상의 비굴한 태도를 꾸짖고 남인의 장래를 위해 서학을 배척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급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서학에 대한 논쟁이 복잡하게 당쟁과도 뒤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sup>19)</sup>

## 2. 斥邪綸音·기타

邪道(기독교)의 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내린 윤음이다. 태조 이후의 역대 교훈 격언등을 모아 邪를 배척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을 가르친 글인데, 1839년(헌종 5)검교제학 趙寅永에 의해 만들어져 국문으로 번역된 목판이 있으며, 1881년(고종 18)에 만들어져 반포된 또하나의 국문본 책사윤음이 남아 있다.<sup>20)</sup>

무삼 연고로 이나라 한가지 말미암은바 평탄한 길을 놓고 몇만리 밖의 이류의 사설을 감심하여써 스사로 그물과 함정의 나아가나나 오히려 저 침치함이 심고한 자와 반핵의 다 드러난자는 진실로 이미 다 그죄에 업디어시나 그 미쳐 현발치 못한 자는 또 규결함이 어며하며 자만함이 어며한 줄을 아지 못하노니 ... 어두움을 깨달아 밝은데 향할 방소를 생각지 아니 하라<sup>21)</sup>

〈유중의대소민인등척사윤음〉(1839)의 현증명의로된 이 책사윤음은 하루 빨리 사교의 함정에서 헤어나 정도로 복귀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불행히 옛문적에도 들지 못하던 바요 천지간에 비로소 보는바 일종 사교가 있어 태서로부터 와 세상을 흑하고 백성을 속이매 백성이 흑 물들어 더러운 재 우금백여년이라 ... 악한 것을 제하여써 덕을 심는 것은 우리 열성조 끼치오신 백성을 보존하는 지극한 뜻이라 이제 이렇듯 통연히 효유하노니 나의 마음을 몸받아 알재 있으리라<sup>22)</sup>

이렇게 1881년 고종 명의의 책사윤음인 〈어제유대소신료급중의민인등척사윤음〉에도 하루 속히 사교의 사슬을 벗어나 유학에 복귀할 것을 황제 명의로 간곡히 가르치고 있다.

19) 崔東熙, 愼後聃의 서학비판·安鼎福의 서학비판, 《서학에 대한 한국실학의 반응》,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참고

20) 斥邪綸音, 헌종 5년(1839)·고종 18년(1881) 국문 목판.

21) 유중의대소민인등척사윤음(도광십구년 십월십팔일)

22) 어제유대소신료급중의민인등척사윤음(광서칠년오월십륙일)

## 斥邪說(황필수)

檜山 黃必秀가 1870년(고종 7)경 지은 것으로 黃芝秀가 주를 달았다. 여기서는 기독교 배척의 이유로 다음의 10 조목을 나열하고 있다.

- 성인을 모욕하고 벽사를 함. (侮聖而行僻)
- 중화로써 이적으로 변함. (用華而變夷)
- 천리에 어긋남. (違天而悖理)
- 가까이 할 것은 배반하고 멀리할 것에 함함. (背親而向疎)
- 생명을 버리고 사망에 나감. (捨生而就死)
- 공교히 하고자하여 도리어 공교히 못함. (欲巧而反拙)
- 스스로 몸을 잃고 중인을 미혹케 함. (自喪而迷衆)
- 잘못을 못고쳐 몸을 망치며 깨닫지 못함. (追前而逐後)
- 어질수 있는데 스스로 몸을 버림. (可賢而自暴)
- 세상을 버리고 명령을 거역하여 행하지 않음. (絕俗而方命)<sup>23)</sup>

## 關衛編(7권)

李基慶의 편저로서 19세기 정조·순조·헌종 삼조의 박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순조이전 특히 신유교난 당시 자료가 태반이다. 이익의 <천주실의발> 안경복의 <천학고>·<천학문답>신후담의 <서학변> 등과 <황사영백서>, 정하상의 <상재상서>등도 수록하고 있다. 척사와 당쟁 양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sup>24)</sup>

## 斥邪論(김치진)

金致振의 자서에 의하면 1857년의 작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금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잠입으로 상하에 이 신앙이 전파된 것을 35조로 분기하여 기독교의 허황됨을 역설하고 있다. 김치진은 斥邪論을 중국에서 출판하여 중국에서부터 파사현정의 정풍운동을 일으키고자 하여 청나라 배를 탔다가 감시선에 발견되어 황해도수영에 압송되어 뜻을 이루지 못한다.<sup>25)</sup>

23) 斥邪說, 黃必秀著, 고종 7년(1870) 필사본

24) 關衛編, 李晚采편, 1931년 간행 목활자본.

25) 斥邪論, 金致振著, 철종 7년(1856) 필사본.

關邪錄(김평묵)

1866년 병인교난 당시 金平默의 저술이다. 종래의 척사론이 유학과 서학을 대등한 입장에서 비판한 것에 분격하여 유학의 모독이라 주장하고, 안정복이 기독교도를 ‘西士’라 한데 못마땅히 여겨 ‘西胡’ 또는 ‘洋僑’의 호칭을 쓰는등 척사사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김평묵은 李恒老의 고제로 배외쇄국의 선봉에 서서 1876년 강화조약 때도 斥倭를 상소한 것으로 이름이 높다.<sup>26)</sup>

#### IV. 基督敎의 전래작품들

##### 1. 李承薰의 《蔓川集》

《만천집》은 일명《蔓川遺稿》라고도 일컫는데 만천 이승훈(1756~1801)의 유고집이다.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의 유일본으로 내용은 雜稿·詩稿·隨意錄의 3부로 되어 있고 권미에 발문을 첨기하였다. <잡고>가운데는 그의 유작으로 생각되는 <農夫歌>, 성호 이익의 <天主實義跋>과 丁若銓의 <十誠命歌>, 李蘄의 <天主恭敬歌>·<聖敎要旨> 그리고 李家煥의 <警世歌>가 포함되어 있다. <시고>에는 <聽鶯有懷>·<平川十二曲>·<元積山中八景>·<復韓草>·<雪月>·雜詩三十餘首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 <수의록>은 일명<蔓川草藥>라고도 하여 創始·本朝年紀·北京日本琉球國程道·都城·行路去里程·中國各省府縣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발문은 無極觀人이라 쓰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평생을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죽음을 면하여 삼십여년만에 세상에 나오니 강산은 옛과 다름없고 푸른 하늘 흰구름은 변함없는데 선현과 벗들은 다 어디갔는가. 목적만도 못한 신세로 도처에 전전하니 슬프도다 다시 세상에 나갈 뜻을 잃었도다. 만천옹의 행적과 글들이 적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모두 손실되어 얻어보기 어렵더니 천만뜻밖에 詩藥·雜錄·片書 등이 남아 있어 줄필로 베껴 기록하여 蔓川遺稿라 이름하였다. 동풍에 얼음 녹고 고목이 봄을 만나 싹틔워 소생함은 하늘의 넓고 큰 섭리로다. 우주의 진리가 이와 같으니 太極而無極을 깨닫는 자는 하늘의 뜻에 접한 자이다.<sup>27)</sup>

26) 關邪錄, 김평묵저, 고종 7년(1866), 필사본.<斥邪文獻集成> 韓國學 19·20 집 한국학연구소, 1978~9.

27)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소장《蔓川集》跋文(역문), 金玉姬, 《曠菴 李蘄의 西學思想》, 카톨릭 출판사, 1979.p.36 참조.

여기서 보면 자연의 운행·섭리를 하느님의 조화로 믿는 철저한 신앙관이 드러난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30년만에 세상에 나왔다는 기록에서 金玉姬교수는 이를 다산 丁若鏞(1762~1836)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곧 1801년 신유교난을 말함인데 그때 살아남아 30년을 생존한 인물로는 그를 제외하고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sup>28)</sup>

다산은 丁載遠의 4남1녀 중 마지막 아들이다. 3남 若鍾은 세례명 아오스딩으로 국문 〈主教要旨〉를 저술 신유교난 때 처형되었고, 장남 若鉉은 딸이 黃嗣永에 시집가 황사영백 서사건으로 일가가 비참한 말로를 맞는다. 그리고 2남 若鎰도 모반죄인으로 병인교난 때 참수되며, 다산의 누이 역시 이승훈의 아우 李致薰에게 시집가 사교의 수괴로 신유교난 때 참형, 약종의 아들 夏祥도 우의정 李止淵에 올린 〈上宰相書〉로 유명하나 기해교난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丁氏가정은 부자 2세대에 걸쳐 순조·헌종·고종 3왕대를 잇는 3대 박해사건에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표본적 가정이 된다. 다산은 형들과 매부 이승훈등 일족이 모두 처형되고 친우 친지들이 사형을 당했으나 그만은 그후 75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35년간을 더 살아남아 長鬚 康津 땅을 전전하여 유배생활을 계속한다. 그의 귀양살이 후 이글(발문)이 씌어졌으니 “上主廣大 無邊攝理”는 삶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 증언이라 할 수 있다. 無極觀人은 丁若鏞에 틀림없다.<sup>29)</sup> 하성래도 《만천유고》의 시작들을 검토하고 《대동시선》의 만천의 시와 《만천유고》의 시들을 비교하여 이승훈의 작임을 확인하고, 무극관인이 정약용에 틀림없으며, 오랜 유배생활에서 돌아와 신유교난 때 희생된 선배 친구들의 유적을 기록하다가 그의 매형인 이승훈의 잡기와 시고를 발견하고 1830년경 그들을 모아 《蔓川遺稿》라 이름한 것으로 고증하고 있다.<sup>30)</sup> 《만천유고》가운데서 기독교적 작품으로 가치성을 인정할만한 것은 〈잡고〉라고 하겠는데, 이 중 〈농부가〉는 이승훈의 작이라 여겨지며 정약전등이 합작한 〈十誠命歌〉이벽의 〈天主恭敬歌〉·〈聖教要旨〉, 이가환의 〈警世歌〉는 국문으로 수록하고 있어 소중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2. 李蕪부부의 작품들

### 1) 〈이벽선생몽유록〉

승실대 기독교발물관 소장으로 일명 〈이벽전〉이라고도 한다. 이벽은 1754년(영조 30)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786년(정조 10) 세상을 떠나기까지 33년간을 살았다. 자는 德操 호는 曠菴, 서학에 입교하여 세례명을 요한이라 하였다. 그는 유가서에 통달하였으나 차츰 주자주의의 모순성을 절감하며 마침 중국에서 수입된 서학서적들을 탐독, 천진암 주어사강학회를

28) 金玉姬 위책. p.37.

29) 李離和는 무극관인을 이승훈의 아들 李身遠로 추정하고 있다.

30) 河聲來, 《蔓川遺稿》의 서지적 고찰, 《天主歌辭研究》, 성황석두 루가서원 1985 p.146.

통해 자신이 터득한 서학지식을 정약전, 정약용,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김범우등에게 전수한다. 한편 이승훈을 북경에 파견하여 영세를 받게하고 귀국시 각종 서학서적들을 들여와 교리연구에 몰두하여 서학수용의 결정적 계기를 이룩한다. <이벽전>끝에는 ‘정아오스딩 서우등 서정이라’고 했으니 아오스딩은 정약종의 세례명이므로 그가 정유(1777)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이벽과 丁學述의 꿈속의 대화가 골격을 이룬다. 하늘에 홀연 먹장구름이 뒤덮고 사방이 혼미한 가운데 문득 서기가 비취더니 홀연 천상의 이벽이 인세에 하강하여 정학술을 만나 대화의 문을 연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주창조의 섭리
- 낙원 추방과 예수의 구원
- 유·불·도의 허망함
- 조상의 제사와 우상숭배
- 신유교난과 진리의 승리
- 天主密驗記와 하나님의 심판
- 천주밀험기의 내용

천주밀험기는 갑인·을묘(1794~5)의 예언에서 비롯하여 갑진·을사(1844~5) 50여년 간의 예언적 사실이 나열되고 있다. 신유·임술간에는 서학교도가 참살당하니 피가 강산을 물들일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신유교난의 예언으로, 이승훈, 권철신, 주문모, 정약종등이 대거 처형된 기독교박해사건을 말함이다. 또 무술·기해에는 서학교도가 참살되어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했으니, 이는 기해교난을 말함이다. 이처럼 역사적 사건과 재난들이 꿈속에 나타난 천상적인 이벽의 천주밀험기를 통하여 예언하였다.

병오 후로는 내세가 임하여 죄있는자 모두 토멸당하여 선하고 천주 공경하는 자 후 세상을 이어갈 때가 오고 있나니라.

여기 병오(1846)는 이벽이 세상을 떠난 후 60년 병오로 이벽이 학술의 꿈에 나타난 해다. 이벽전의 작자는 바로 이 병오년 이벽의 재림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이벽전은 몽중설화자가 실제인물이며, 유·불·도를 부정하고 새로운 천학사상을 설득하고 있으며, 천주밀험기라는 새 예언서를 통하여 천주의 재림을 이벽의 환생을 통해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성이 높은 작품이라 하겠다.<sup>31)</sup>

31) 즐고, 니벽선심몽회록 解題, 송실어문1집 1984 <부록>

## 2) &lt;성교요지&gt;

<聖教要旨>은 이벽의 대표적 저술이다. <만천유교>에서 보면 제목 밑에 “讀天學初函 李曠菴作註記之”라고 되어 있고 언해본 서두에는 “이 성교요지는 이벽선생계옵서 천학초함 읽으신후 작하심이라”고 쓰고 있어, 이벽이 작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언해본 말미에는

차 성교요지 책자는 옛 이벽선생 만드신 구결이라. 임신년 정아오스딩 등서우약헌서 실이라.<sup>32)</sup>

라는 주기가 있다. 임신년은 1812(순조12)이며 “騰書于藥峴書室”의 정아오스딩은 정약종이니 그가 약헌서실에서 베껴쓴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요지>는 옛 시경의 형식을 모방한 기독교 성서를 주제로 한 문학적 교훈적 서사시라 할 수 있다. 한문본의 전체적 구성은 4자 단위의 정형을 취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내용을 서술한 다음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한 저자의 주기를 붙이고 있다. <성교요지>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신구약성서가 주제가 되어 있고, 16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는 바울의 로마서가 주제가 되어 있다.

세상에 사람이 나기 전에 상제께서 계셨으니 오직 하나이신 천주라. 이르나니 모든 성신이 그와 비하지 못하는도다. 천주 옛새동안 힘써 만드시니 천지를 개벽하고 또한 만물을 만드시니 그저 기이하고 신기로운 것이니라. 흠을 빚어서 영혼이 있는 우리들 사람을 만드시니 이어 살아가는 땅과 터를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장만하여 주시었나니라.<sup>33)</sup>

첫절의 내용은 구약 창세기의 처음 내용으로, 천지창조문제와 모든 만물을 새롭게 보존한다는 상제의 뜻을 읊고 있다. 그리하여 마지막 이글을 끝맺으면서, 상주의 덕이 넓기 이룰데 없고 상주의 공이 빛남을 보게 되면 사람은 마땅히 깊이 생각하여 마음을 가라앉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나쁜 마음을 고쳐 공손히 공경하면 성령을 받아 전날의 잘못을 스스로 회개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 3) &lt;천주공경가&gt;

《만천유교》에는 <성교요지> 외에 이벽의 작으로 <天主恭敬歌>가 전한다. 제목의 하단에는 “己亥年臘月 於走魚寺 李曠菴藥作歌”라고 하여 이벽의 창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가사는 천주 가사의 효시가 되는 작품으로 4·4조 1음보로 계산할 때 33귀의 짧은 노래이지만, 당시 태

32) 李曠, 성교요지, 하성래역 성황석두루가서원 1985 <해제> 참고.

33) 未生民來 前有上帝 唯一眞神 無聖能比 六日力作 先闢天地 萬物多焉 既希且異… (1·3절)

동기의 기독교사상이 남인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내말씀 들어보소”에서 비롯하여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에 이르기까지, 영혼불멸을 굳게 믿고 불사공경을 하지 말며 천당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sup>34)</sup>

#### 4) <유한당언행실록>

<柳閑堂言行實錄>역시 기독교 박물관자료로서, 이 작품의 저자는 이벽의 부인 柳閑堂 權氏 임이 밝혀졌다.<sup>35)</sup> 稷菴 權日身의 딸인데, 이 사실은 서문 중<숙부영가권철신작서>가 그 근거가 된다. 안동권씨 족보에는 권일신의 자녀로 상학·테레사·상명·유한당 네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유한당언행록은 모두 12 항목으로 되어 있다.

- 마음가지는 법
- 용모가지는 법.
- 몸가지는 법.
- 말씀하는 법.
- 기거하는 법.
- 거가하는 법.
- 처녀의 수신하는 법.
- 출가하는 법.
- 가장 섬기는 법.
- 부모와 구고 섬기는 법.
- 자식 교육하는 법.
- 자부 교훈하는 법.

이 언행록의 내용은 조선조 <內訓>이나 <女四書> 또는 <女範>등과 비슷하다. <내훈>은 성종모 소혜 왕후의 찬술이며, <여사서>는 중국여성훈계서로 <언해여사서>가 전한다. <여범>은 영조빈 선희궁이 직접 저술한 여성교육서다. 이 언행록도 이들과 유사하지만 전래의 전통적 유가윤리나 주자주의의 용어들을 모두 기독교적 언어로 바꾸고 있다. 공자나 성현의 말씀은 모두 ‘천주의 말씀’으로 대체되고 있다.

34) 앞책, 《蔓川集》, 十誠命歌·天主恭敬歌·聖教要旨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하성래, 이벽의 천주공경가, 《天主歌辭研究》참조.

35) 줄고, 류한당언행실록 해제, 승실어문 1집 <부록>

천주말씀에 이르시되 한집 계교는 화순한데 있고 일생계교는 부지런한데 있고 일년계교는 봄에 있고 하로의 계교는 새벽에 있다 하셨나니라. (거가하는 법).

천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십년계교는 나무를 심고 일년계교는 곡식을 심으라 하셨으니 무는 남너노소하고 이말을 잊지 말고 명심하여 행하면 평생에 유익할뿐 아니라 세계에 명예 있으리라 (거가하는 법)

천주께서 가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화친하라 하셨나니라. (부모와 구고 섬기는 법)

여기서 보면 기존의 교훈적 어귀 위에 ‘천주께서’ 라는 말만을 씌워 기독교적인 것으로 바꾸고 있다. 다음으로 증전 훈계서들이 상류·특수층에 제한된데 비해 본서는 서민적 교훈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처녀의 수신>, <남편 섬김>, <부모·구고섬김>, <자녀교육> <자부교육> 등 당시의 전통예절들이 저항없이 서학에 수용되어 국문 표기로 부너자 민중층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리고 표현의 방법도 평이한 문장 비유적 문장을 많이 쓰고 있다. 부부 관계를 원앙새에 비기고 혼인베개에 원앙을 수놓은 까닭을 설명한다든지, 현숙한 부인을 연꽃에 비겨 외면적 아름다움보다 단아한 태도를 더 높게 여겨 표현함이 좋은 예가 된다. 이 글의 필사는 <경자남월 정아오스딩 서우수표>라 하였으니 丁若鍾이 1780년 庚子年 12월에 수표교집에서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벼전>이 22면인데 비해 본 언행록은 34면의 필사본이다.<sup>36)</sup>

### 3. 丁若銓의 <十誠命歌>·丁若鍾의 <主教要旨>

정약전(1758~1816)은 丁載遠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일찌기 서학에 입교한 후로는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여 기독교 전파에 힘썼으며, 광암 이벽의 누이동생과 결혼하여 신앙운동에 힘쓰다가 신유교난 때 흑산도로 유배되어 《茲山魚譜》를 저술하였다. 《蔓川集》에는 기해년·선달·走魚寺 강론 후 정약전, 권상학, 이충억등이 노래를 지어 부쳤다고 하였으니 <십계명가>는 정약전이 중심이 된 공동작의 형태를 빌고 있다.<sup>37)</sup> 4음보 6행 10편으로 십계명을 가사로 노래하고 있다.

세상사람 선비님네 이아니 우스운가  
사람나자 한평생에 무슨귀신 그리 많노  
아침저녁 종일토록 합장배례 주문의고

36) 金玉姬, 柳雨堂權氏의 言行實錄에 관한 研究 《韓國天主教 女性史》 한국인문과학원, 1983.

37) 《蔓川集》<十誠命歌>, 己亥臘月於走魚寺講論後 丁巽菴 權公相學 李公寵億 作歌寄之



있는돈 귀한재물 던져주고 모셔봐도  
 허망하다 마귀귀신 우매하고 사람들아  
 허위허례 마귀귀신 믿지말고 천주믿세

다음에 전래의 <聖敎日課> (1597)와 <천주성교공과> (1880)에서 각각 한문과 국문 십계명을 옮겨 보자.

- 欽崇一天主萬有之上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위에 공경하여 높임)
- 毋呼天主聖名 以發虛誓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발치말고)
- 守瞻禮之日 (주일을 지키고)
- 孝敬父母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 無殺人 (사람을 죽이지 말고)
- 無行邪淫 (사음을 행치말고)
- 無偷盜 (도둑질을 말고)
- 毋妄證 (망녕된 증참을 말고)
- 毋願他人妻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 毋貪他人財物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구약성서 첫째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으로 허위허례의 마귀귀신을 믿지 말고 오직 천주를 믿어야 된다고 하였다. 둘째계명은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으로 함부로 천주이름을 논하지 말고 참된 사람의 갈길은 어디 있는가 살펴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니, 하루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니 인간행실 가운데, 부모공경이 으뜸이며 부모공경을 알면 자연 천주공경을 알게되니 자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계명은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니, 전쟁에서 충신이 되는 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모두 하느님께 죄가 되는 것이니 천국은 살생이 금물임을 강조한다. 여섯째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니, 간음은 더럽고 추악하고 마음썩고 몸버리는 행위이니, 이런 사행을 멀리하여 천주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니, 도적질은 행동과 마음속의 행위까지 포함되며 이런 행위로 자손에게까지 오명을 남기지 말고 하느님의 대의를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계명은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것이니, 특히 과거의 봉당싸움은 奸臣小夫의 거짓증거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시야를 크게 돌려 천주대의를 알게되면 그러한 생각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 아홉

38) <聖敎日課> (1597)는 <袖珍日課>라고도 하는 龍華民의 글이며, <천주성교공과>는 1880년의 목판본이다.

째, 열제계명은 ‘남의 아내와 재물을 탐치말라’는 것이니 ‘만약의 근원은 탐심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守分樂道の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이러한 탐심을 억누르지 못할 때 모든 화근이 이로 말미암는다고 경계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십계명을 당시 조선사회 현실에 알맞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노래한 이 십계명은 당시에 행해져야 할 기독교적 윤리관을 말해줄뿐 아니라 우리나라 천주교사의 효시작품으로 과거의 샤먼과 유교적 습속에서 기독교신앙으로의 획기적 변혁을 읊고 있어 그 가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sup>39)</sup>

丁若鍾(1760-1801)은 정약전의 아우로 세례명을 아오스딩이라 하며, 이미 <이벽선생몽유록>(1777)과 <유한당언행록>(1970)을 기술하여 남긴 바 있다. 그는 이승훈등과 모의하여 주문모신부를 맞아들여 전도에 힘쓰다가 신유교난 때 이승훈등과 함께 서소문형장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主教要旨>은 국문문답체로 되어 있다. <黃嗣永帛書>에는 “當爲教中愚者 以東國諺文 述主教要旨二卷”이라 하였으니 어리석고 우매한 교인들을 위하여 국문으로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약중 수고본은 전하지 않고 목판본(1885)과 활자본만이 전한다.<sup>40)</sup> 상편은 “인심이 스사로 천주 계신것을 아나니라”에서 “지옥은 천당과 맞은 짝이 되나니라”에 이르는 32항목으로 구분되어 기독교신학의 효교론적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하편은 “천주 옛세만에 천지만물을 내시니라”에서 “사람이 천주교를 들으면 즉시 믿어 봉행할 것이니라”에 이르는 11항목으로 계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적 敎贖論으로 되어 있다. 일찍 박종홍교수는 <주교요지>가 짜임새가 있고 그 표현이 평이한데다 깨끗한 우리말로 요령있게 서술되어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sup>41)</sup> <주교요지>는 늦어도 1800년 이전의 창작이 확실하니 당시 국문의 보급과 언문일치운동에도 이 글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주교요지>는 기독교사상 서학의 교리서로는 효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天主實義>와 비교해 보면 내용과 순서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마테오리치의 교의이론을 순 한글로 쉽게 풀어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당시까지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서민층, 부녀층을 계몽하고, 동시에 종교적으로 신앙심을 자극하는데 이 <주교요지>가 크게 영향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하느님(천주)의 존재를 증명하고, 천주의 속설을 밝히며, 속론과 불교의 이론을 비판하고, 천주의 상벌을 논하는 등 당시 기독교도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윤리강령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sup>42)</sup>

39) 구약성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40) 정약중, <주교요지>, 하성래주, 성황석두루가서원 1985(해제). 본고는 기독교박물관소장 목판본(1885 중간)을 참고하였다.

41) 朴鍾鴻, 西歐思想의 도입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1969. 9.

42) 金玉姬, 마테오리치의 <天主實義>와 丁若鍾의 <主教要旨>, 《曠菴 李蘊의 西學思想》참고.

<己亥日記>는 원본이 필사본인데 1905년 뮌헨(閔德孝)감수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韓國教會

#### 4. 玄錫文의 〈己亥日記〉

현석문(1799~1846)의 기해일기는 1939년(현종 5) 기해교난 순교자들의 기록이다. 현석문은 새 남터순교자의 한사람이다. 따라서 기해일기는 순교자가 쓴 순교일기라는 점에서 종교적·문학적 가치가 더욱 높다. 내용은 1839년 박해당시 순교한 79명의 신앙생활과 순교사실을 국문으로 기술하였다.<sup>42)</sup> 〈上宰上書〉로 이름난 丁夏祥전기의 한 부분을 옮겨보자.

기해 유월초일일에 포졸이 이르러 노모와 누이 한가지로 잡히니 바오로는 집에서 홍사로 결박하여 사관청으로 잡아다가 성명사자 묻고 곳간에 가도왔더니 이튿날 그 원정을 종사관께 바치니라. 삼일에 포장이 잡아올려 문왈, 네 조선 풍속은 좃지 아니하고 외국도를 행하여 사람을 가르쳐 혼탁하게 함이 옳으나. 답왈 외국 좋은 물건은 취하여 쓰고 천주성교난 외국도라고 옳은 일을 배반하오리까. 사람마다 아니치 못할 도리로소이다. 포장왈 네 외국도난 기리고 나라와 관장이 금하난 것은 그르코나하니 그말에는 죽어지만이라도 소이다. 그 원정의 뜻을 자세히 묻고왈, 말은 옳으나 나라히 금하는 것을 당을 모아 가르치느냐 하고 결박하여 놓고 주뢰로 누르니 팔이 다 늘어진 후 하옥하니라 ... 금부로 올려 연삼일 추국에 형문 삼차하고 팔월십오일 성마태오종도 침례 이튿날 신시에 류아오스딩과 한가지로 참수 치명하니, 연이 사십오세요, 시는 천주 강생 후 일천팔백삼십구년이러라. 법장으로 나갈 때에 수례우 회서 혼연히 웃고 낙낙하니라.<sup>43)</sup>

여기에는 정하상의 체포 심문과정, 참수형에 처해진 경과가 여실히 기록되고 있다. 사형장에 웃으며 나아가는 표정까지 서슴없이 기술하고 있다. 기해일기에는 범주교(Imbert)·나신부(Maubant)·정신부(Chastan)를 비롯하여 丁夏祥·劉進吉·趙信喆 등의 유명인, 현석문의 매씨 현가롤로(과부)·순길의 모친(과부)·감골집·궁녀 등 다양한 계층의 순교자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특히 아내·딸·모친·누이·고모·질녀 등의 여성가족 하층서민 가운데 더욱 순교자가 많은 것이 특색이다. 〈기해일기〉서 에는 처음 范主教가 순교사실을 기록하다가 자신도 미구에 순교할 것을 알고 玄錫文에게 이 일이 맡겨져 완성을 보는데, 丙寅풍파에 모두 분실되고 여러해 땅속에 묻혀있던 현 책을 겨우 얻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해일기는 이처럼 필사본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1905년 활자본으로 간행되는데, 우리 전기문학의 새 장을 열어주는 소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sup>44)</sup>

→ 史研究資料 15·16 집으로 영인 간행하였다. 1984년에는 카톨릭출판사(117면)·성황석두 루가서원에서 각각 활자 내지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43) 〈정바오로〉,〈기해일기〉(1905) PP. 42~45 옮김.

44) 최석우, 기해일기의 몇가지 문제점, 司牧 43호, 천주교중앙협의회. 하성래, 殉教日記의 傳記文學으로서의 특성, 한국교회사논문집 1집, 1984.

이밖에도 문학적으로 평가할만한 글로는 최해두의 〈自責〉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글은 1801년 신유교난을 겪은 사람이 자신만 순교하지 못하고 옥중에서 잔명을 부지하여 살아남은 것을 스스로 나무라는 내용이다. 이 글에는 순교자와 생존자의 대조되는 모습을 통하여, 생존자로서 옥속에 갇혀 잔명을 부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말하여, 깊은 참회와 자책의 뉘우리를 늘어놓고 있다.<sup>45)</sup>

19세기 후반 기독교탄압이 뜸해진 틈을 타 1864년에는 다량의 기독교서적이 국문으로 인쇄되어 나오는데 그 서목을 들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성교요리문답(聖教要理問答) 4책
- 천주성교공과(天主聖教工課) 1책
- 주년첨례광익(周年瞻禮廣益) 1책
-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教禮規) 2책
- 성찰기략(省察記略) 1책
- 영세대의(領洗大意) 1책
- 회죄직지(悔罪直指) 1책
- 신명초행(神命初行) 2책
- 천당직로(天堂直路) 1책
- 성교결요(聖教切要) 1책
- 주교요지(主教要旨) 2책

이러한 한글본 종교서들의 간행이 기독교신앙을 민중 속으로 급속히 전파함은 물론, 국문 보급을 통하여 서민문학에 이바지한 공적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sup>46)</sup>

## V. 聖書翻譯과 어문학의 발달

한문으로 된 성서가 이땅에 소개된 것은 1816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화란선교사 구출라프에 의해 성서가 소개되기도 하고(1832), 1865년에는 토머스목사가 황해도 해안에 상륙하여 한문성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문학의 발달은 아무래도 성서의 번역사업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大英及外國聖書公會 보고에는 스코트랜드선교사 매킨타이어(J. Macintyre)와 로스(J. Ross)목사가 조선청년들과 함께 성서번역에 종사한 기록이 나온다. 로스가 만주 通化縣 고려문에서 徐相崙·李應贊 두 청년을 조선어선생으로 삼고,

45) 하성래, 한국문학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 국어국문학 74호.

46) 山口正之 앞책, 庶民文學, pp. 147 ~ 154참고.

그들에게 성서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국문으로 성서를 번역하는 사업에 착수한 해는 1873년으로 알려져 있다. 선교사와 이들 서북청년의 만남은 기독교의 대중화에 결정적 계기를 이룩하고 있다. 이들의 의욕에 찬 계획이 결실을 맺어 1882년 가을에는 만주 瀋陽 문광서원에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와 <예수성교요안내복음전서>라는 쪽 복음서가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sup>47)</sup> 로스와 매킨타이어는 계속사업으로 서상륜·이응찬·白鴻俊·李成夏·金鎮基 등의 도움으로 <예수성교전서말코복음>, <예수성교전서마태복음>을 간행하고, 1887년에는 《예수성교전서》라 하여 신약성서가 완전 번역 간행되기에 이른다. 그중 특히 서상륜은 로스에게서 세례를 받고 번역성서를 들고 압록강을 건너가 전도사업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후 언더우드(Underwood)가 李樹廷번역의 성서를 가지고 전도할 때 서상륜이 로스판성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 서상륜이 그의 고향인 황해도 장연 솔내(松川)에 세운 솔내교회는 조선인의 손으로 처음 세워진 한국 프로테스탄트교회의 요람이 되었다.<sup>48)</sup>

한편 일본의 요코하마(橫濱)에서는 1885년에 조선인 유학생 李樹廷에 의하여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가 처음 간행된다. 이수정은 임오군란 후 박영효 일행을 따라 민영익, 김옥균의 개인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이 성서번역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동경외국어학교의 한국어교사로 봉직하면서 일본인 목사 쓰다센(津田仙)을 만나 한문성서와 기독교교리에 접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는 1883년 露月町교회에서 야스가와(安川亨)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곧 한문 사복음서에 이두로 토를 달았으며, 188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신약마가전 복음서언해>가 요코하마 미국성서공회를 통해 간행되기에 이른다. 미국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및 스크랜튼이 1885년 인천항에 입항할 때 이책을 들고 들어왔다는 사실은 이수정의 번역사업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로스역과 이수정역은 원문과 한국어에 조예가 깊은 외국인의 적절한 수정이 없이 한국인 학자들만이 중국어와 일본어성경에서 번역한 것일수 밖에 없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들 선구적 번역에 감사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과장된 문체며 지나친 한문투며, 사투리표현이며 빈번한 오역이며 괴상한 철자며, 거친 활자등은 초기 선교사들로 하여금 구번역을 고쳐 만드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느니 보다 새로 번역하는 편이 더욱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sup>49)</sup>

47) 金良善, Ross Version 과 Protestantism, 白山學報 3호, 1967.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 乙酉文化社 1975. p.32.

48) 趙神權, 성서번역의 문학사적의 의의, 《韓國文學과 기독교》, 연세대 출판부 1983.

49) 白樂擘, 《韓國改新敎史》, 연세대출판부 1973. p.159.

앞의 인문은 레이놀즈(W.D. Reynolds)선교사의 말인데, 번역상의 오류, 문체나 내용의 졸렬성 때문에 1887년 성서번역위원회가 발족되어, 1904년에는《신약전서》, 1911년에는《구약전서》의 완역본이 새롭게 간행을 보아 기독교문화운동에 성서가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만주에서의 로스번역과 일본에서의 이수정번역은 국외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 외에 조선인의 손을 빌어 우리말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수정은 어학적인 재질이 빼어나 《朝鮮日本善隣互話》를 저술하고, 《天主教入朝鮮事實》이라는 한국판 달래의 조선천주교사를 썼다.<sup>50)</sup> 또 1844년 일본에서 간행된 《金鰲新話》에 발문을 쓰기도 하고, 朴齊炯의 《朝鮮政鑑》에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이수정은 민영익과 같은 보수계 인사와 친숙하였으나 일본에서의 친일활동을 구실로 1866년 귀국하자 곧 체포되어 처형되는 비극을 겪게 된다. 그는 일어, 한문은 물론 영어, 헬라어까지도 매우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정 번역성서를 손에 들고 인천항에 상륙한 언더우드·아펜셀러 선교사의 활동은 한국개신교 백주년의 기점을 이룩하고 있으니, 번역성서가 민중문화 내지 기독교전파에 이바지한 공로는 막대한 것이라 하겠다.<sup>51)</sup>

성서뿐 아니라 우리말로 직접 노래불렀던 찬송가도 전파과정을 통하여 적지않게 우리 문화의 발달에 이바지하였다. 김병철에 의하면 최초의 찬송가집은 감리교선교사 존스(G.H. Johns)와 로드와일러(L.C. Rothweiler) 공편의 《찬미가》(1892)라고 한다. 수록된 찬송가는 27편 가사만 수록된 30장본이다. 그후 언더우드가 펴낸 《찬양가》는 모두 117편인데, 이책은 악보를 함께 수록한 최초의 것이다. 이어 1908년에는 예수교서회가 간행한 《찬송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262편이 수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가락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여러편 삽입되었다. 해방 후 1949년의 소위 《합동찬송가》에 수록된 노래가 586편에 이르는데, 숫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4.4조의 율격이 개화가사 창가의 바톤을 넘겨 받아 새로운 시가의 형태로 발달을 보여 시가문학의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sup>52)</sup>

#### IV. 〈洪吉童傳〉·〈春香傳〉의 기독교적 시각

##### 1. 〈홍길동전〉의 시각

홍길동전은 허균(1589 ~ 1618)의 창작으로 최초의 국문소설로 알려져 있다. 유몽인의《어우

50) 吳允台, 先驅者 李樹廷 篇, 〈韓國基督教史〉(4)

51) 李樹廷 譯, 신약마가전복음서연해 해제(崔泰榮·崇實語文2집)

52) 金秉喆, 개화기시가상에 있어서의 초기 한국 찬송의 위치, 아세아연구 14권 2호(1971). 슈미트, 찬송가의 초창기 번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석사논문, 1972.

야담》가운데는 허균이 중국에 들어가 지도와 게 12 장을 얻어 돌아왔다는 기록이 보이니 이로 보면 그가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신봉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다. 허균이 동지사행으로 북경에 들어간 것이 1610년(광해 2)이며 그의 저술 《성소부부고》에는 갑인·을묘(1613-1614)에 중국에서 4 천여권의 서적을 구입해온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마테오리치는 이미 1600년경에 북경에 들어가 천주당을 건립하고 천주실의를 간행하였다. 그러므로 허균이 북경에 간 때는 기독교가 이미 성행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가 교회당을 찾아보고 선진서학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었음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기독교에 지극한 관심을 표명했던 허균인 만큼 그의 창작 〈홍길동전〉을 기독교와 관련하여 검토해봄은 결코 헛된 일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홍길동전〉의 특성으로는 첫째 최초의 국문소설이라는 점, 둘째 광해난정 당시 계급타파를 주장한 사회적 배경이 곧 작품의 배경으로 전이되어 있다는 점, 셋째 율도국이라는 하나의 이상국 즉 유토피아세계를 현실의 대안사회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넷째 작품의 구성을 영웅의 일생 내지 地下國大賊除治같은 민담구조를 통하여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들 수가 있다.<sup>53)</sup> 그중 첫째 문제는 작품의 창작연대와도 관련된다. 제작연대를 17세기 초반으로 추정하면, 각종 기독교 교리서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읽혔다는 李景溟의 상소(1788)나, 〈천주실의〉등 번역교리서들이 읽혔으리라 추정되는 洪樂安의 계(1790)등 연대와는 현격한 간격이 있으나, 여하튼 양자 공히 국문으로 된 표기라는 공통점을 찾아볼수 있다.<sup>54)</sup> 둘째 문제는 당시의 庶孽禁綱法과 관련하여 광해난정 당시의 시대적 부조리를 작품 속에서 “呼父呼兄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홍길동”으로 대담하게 전이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성이 높게 평가된다고 하겠다. 홍길동은 사회의 제도적 부조리에서 뛰쳐나와 불의한 재물을 탈취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활빈당의 당수가 되고, 함경감영 습격을 통해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불교의 부패를 고발하여 해인사를 습격하는등 나중에는 팔도에 하나씩의 길동이 횡행하여 어느 것이 참 길동인지를 알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혼란이 조성된다. 길동의 저항은 庶孽防限과 부조리로 가득한 당시 조선사회에 대한 도전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대응되는 하나의 대안사회 즉 이상국건설은 곧 홍길동전의 주제 사상을 보여준다. 홍길동전은 허균의 꿈을 율도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적 공간에다 실현시켜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율도는 곧 이상향, 토머스모어의 〈유토피아〉에 대응된다. 〈유토피아〉는 無何有鄉(Nowhere)의 의미로 인간의 이상사회가 문학 속에 표현된 것인데 거기에는 종교적 관용, 교육의 평등이 설명되는 반면 당시 영국사회에의 비판의 근거에는 열렬한 기독교신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허균의 기독교에

53) 鄭鈺東, 〈洪吉童傳研究〉, 文豪社, 1961. 참고, 허균과 그의 文學, 《古小說通論》, 二友出版社, 1983.

54) 하성래, 한국문학에 끼친 天主教의 影響, 국어국문학 74호, p,102.

대한 관심과 평등사상이 빚어낸 산물이 곧 울도국이 아니었겠느냐의 생각은 홍길동전의 표층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절실했다.

- 길동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장면은 마치 예수가 나귀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과 같다.(마 21:1 ~ 11).
  - 홍길동전의 오방신장은 성서의 흰말·붉은말·검은말·청황색말탄 자와 같고, 길동은 순교자로 대체되어 나타난다(계 6 : 1 ~ 11).
  - 길동이 왕 되기 전 망탕산에 들어가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은 예수가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낙원을 되찾는 모습과 흡사하다.
  - 길동의 생에 대한 결론적 표현 “세상사 생각하니 풀끝의 이슬과 같도다”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베전 1:24)와 같다.
- 마지막 왕과 왕비가 승천하는 대문은 성서에 자주 나오는 승천의 사건과 흡사하다.<sup>55)</sup>

앞 인문은 물론 홍길동전과 성서의 관계를 미리 연결지어 놓고 그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맞추어간 듯한 느낌은 없지 않다. 그러나 허균의 기독교적 관심과 길동의 유토피아적 사고가 전혀 홍길동전 해석과 무관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작품의 영웅성·민담구조의 문제다. 조동일은 홍길동을 중세적 질서에 대한 영웅으로, 홍길동전을 영웅의 일생을 재현한 전승적 영웅소설로 보고 있다. 김열규는 홍길동전을 전기적 유형의 동명왕 전승과의 유사성을 들어 구조적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망탕산의 요괴를 퇴치할 때는 문득 공중으로서 무수한 신장이 내려와 길동을 구출해 주고, 백룡의 딸들을 구출하여 보은의 아내로 삼는다. 앞서 제기된 영웅전승과 지하국 민담구조를 통하여보면 초인적 신비사상을 담고있어, 한번쯤은 홍길동전을 기독교적 차원에 놓고 분석해봄직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최초로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고 서학을 종교로 신봉했던 허균과 그의 사상소설 홍길동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으로도 생각된다.<sup>56)</sup>

## 2. 〈춘향전〉의 시각

〈춘향전〉은 우리 고전소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언제 누구에 의하여 창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일종의 積層文學의 성격을 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춘향전〉의 이본만도

55) 趙神權, 擬基督教的 유토피아소설 〈洪吉童傳〉「유토피아의 건국」 앞책.

56) 柳洪烈, 洪吉童傳을 지은 許筠과 그의 信仰生活, 카톨릭靑年, 1955. 4.

57) 金東旭, 《春香傳研究》,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5, 「춘향전 이본고」



백여종에 이른다고 한다.<sup>57)</sup> 춘향전 가운데 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은 晩華 柳振漢의 이른바 만화본춘향가(1754, 영조 30)이다. 경판본에는 배경을 ‘仁祖朝’, 완판본에는 ‘肅宗朝’라 하였으며 형성연대는 최소한 인조때까지는 소급될 수 있다. 춘향설화는 漂泊文學의 성격을 가져 민중 광대들에 의해 가창되다가 1754년(영조 30년) 유진한에 의해 한시로 창작되어 기록문학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화 유진한은 유몽인의 6대손이다. 유몽인은 허균이 천주교 도입을 말하였고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유진한도 기독교와 어떤 인연을 가졌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유진한은 당시 목천현감으로 安鼎福과도 친교가 두터웠다. <천학문답>이 비록 반서학적인 글이긴 하지만 관심은 지대했다. 그리고 신유박해 때 순교한 權日身은 그의 사위가 된다. 유진한의 친척에는 유한검·유관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진한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정범조(1723~1801)의 《左海集》에는 오언시 <春娘詞>가 전한다. 정범조도 정씨 일가와 혈족관계며, 정약전의 딸이 정범조의 친구 채제공의 며느리였음을 감안해 보면 정범조 역시 기독교의 영향을 질게 받은 인물이다. 또 權用佐의 딸이 지었다고 하는 <獄中花>도 장차 매맞아 죽을뻔한 여인을 어떻게 자비로운 부처님이 와서 구원하였는지 참으로 기이하고 다행한 일이라 하였으니 그 <慈悲之佛>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하느님이라 할수도 있다. 권용좌의 딸은 1839년 기해교난 때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역관 柳進吉 마두 趙信喆과 더불어 순교한 여성의 대표격 인물이므로 <獄中花>는 기독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작품이다.<sup>58)</sup>

오윤태는 춘향전을 당시 종교적 박해 속에서 서학교도들이 고대하던 영광의 재림예수의 모습을 춘향과 이도령의 상징설화를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춘향은 박해 속의 신도들이며 이도령은 그러한 박해 속에서 갈망하는 구원자의 상징적 인물로 보고자 하였다.<sup>59)</sup> 그는 춘향전이 하한담 최선달 등의 판소리로 전승된 과정을 중요시하여 춘향이 죽어 이몽룡과 재회치 못한 사실과 현실적으로 꾀박당하던 당시 신앙인들의 ‘재림의 소망’을 조심스레 연관지우고 있다. 그는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여 동정을 지키며 재림 예수를 기다리다 순교한 柳恒儉과 이루갈다를 춘향전의 한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 오윤태는 또 앞서든 <만화본> - <춘량사> - <옥중화>의 발달과정을 다시 <水山廣寒樓記>와도 연결짓고 있다. 8회 회장체로 된 <수산광한루기>의 작자 <半綉+疋長亘直心>을 필자는 破字를 추적하여 趙秀三 또는 趙信喆로 본 바 있거니와 오윤태는 권용좌 딸의 <옥중화>를 순교자 유진길이 읽고 이를 다시 백화체로 다듬어 <광한루기>라 이름하였고, 그가 제자 조선철에 보이면서 자신이 저자가 아니더라고 한 것은 은연중 권용좌의 딸이 원작자임을 지칭한 것이라 못박고 있다.<sup>60)</sup> 비록 춘향전의 설화는

58)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金鼎元斥邪疎

59) 吳允台, 天主教와 春香傳의 관련성에 대한 史的 檢討, 《韓國基督教史》(2), 혜선문화사, 1979.

60) 줄고, 水山廣寒樓記 해제, 송실어문 4집, 1987. 오윤태, 앞책(2), p.404

상대로 소급된다 하더라도 이를 끌어와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는 신유교난을 전후한 순교자들의 구상이며, 그 후 기해교난 무렵 파란이 좀 잔잔할 때 권씨와 같은 문장가가 이를 수정하고 백화에 능한 정하상·유진길 등 양반역관의 손으로 한역되어 전승되었음직하다는 것이 춘향전 작자설의 배경이기도 하다.<sup>61)</sup>

〈춘향전〉원판본(1860)에는 “하느님”이 자주 등장한다. 방자의 “여보 하느님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짓말도 듣겠어”나 천자풀이 가운데 “天開子時生天” 등 종래 유불도의 이미지와는 다른 ‘하느님’이 여러군데 보인다.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에도 “춘향과 이도령의 백년 가약을 하느님이 마련하였다.” “하느님은 자연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sup>62)</sup>

〈춘향전〉을 기독교와 연관시키려는데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른다. 그러나 〈춘향전〉의 형성과 기독교의 수난연대가 대체로 일치하여 〈만화본〉-〈춘랑사〉-〈옥중화〉-〈광한루기〉 등으로 이어지는 관계양상을 연결시켜 보면 적어도 춘향설화 춘향가가 재창작 과정에서 기독교적 사건들과 연결되거나 관련지어졌을 가능성에는 수궁이 간다. 이도령과 춘향의 애정설화가 수난 당시 기독교인들에 이용되어 종교적 색옷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났을 가능성은 결코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sup>63)</sup>

## Ⅶ. 開化期文學과 기독교

일반적으로 개화기라고 하면 1894년 甲午更張을 기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개화기문학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갑오경장 이후 韓日合邦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의 문학을 일컫는다. 이 시기의 문학으로는 개화가사·창가·신체시·신소설·신파극 등을 들 수가 있으며, 문학사상의 주조는 자주독립의식의 고취, 민권신장, 신교육, 자유연애사상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개화기문학의 성격은 고전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문학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시기에 기독교가 성서의 번역, 찬송가의 애창 등 이른바 한글문화매체를 통하여 점차 민중 속으로 전파되면서 더욱 개화 내지 개화문명을 촉진하였다.

### 1. 崔南善과 李光洙의 문학

최남선(1890~1957)은 어려서부터 천자문과 더불어 국문에도 관심을 기울여 집안이 기독교를 신봉하지는 않았지마는, 신약성서를 탐독하고 현대정신을 알기 위해 《天路歷程》을 읽는 한

61) 김동욱은 이 〈獄中花〉가 〈춘향전〉일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62) 오윤태, 앞책, 〈춘향전의 본문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기독교적 요소〉

63) 줄고, 춘향전의 새로운 視角, 승전대학신문 328호(1979.10.11)

편 당시 선교사들이 번역한 많은 기독교관계 서적들을 탐독하였다.<sup>64)</sup> 그는 기독교를 통해 국문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이 그로 하여금 〈해에게서 소년에게〉 등 많은 新體詩를 창작하고 최초의 잡지 〈소년〉을 비롯하여 〈청춘〉 〈동명〉의 창간을 통해 개화의 새 물결을 불러일으키며, 新文館과 朝鮮光文會를 창설하여 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 특히 그의 시는 창가나 당시 국문을 통해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가창되던 찬송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그의 시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창세주, 역사의 주재자로 의식하고 이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신약성서의 수사나 비유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sup>65)</sup> 최남선은 자신의 진술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기독교서적을 즐겨 읽고 기독교도와 상종하면서 기독교사상에 익숙해졌으며, 자유·평등·독립 등의 말이 원래 기독교에서 나왔으므로 내 사상에서 기독교적 영향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sup>66)</sup>

한편 李光洙(1892 ~ 1953)도 그의 작품 가운데서 보면 초기의 기독교사상이 후기의 불교사상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물론 춘원이 기독교에 접하게 된 것은 그가 기독교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으며, 톨스토이 등의 저서에 심취했던 것과 도산 안창호 등의 영향이 컸음을 들 수가 있다.<sup>67)</sup> 그는 기독교가 한국에 끼친 공적을 첫째 신문명의 서광을 가져다 준 점, 둘째 도덕의 진흥, 셋째 교육의 보급, 넷째 여성의 지위향상, 다섯째 조혼의 폐단을 없앤 점, 여섯째 한글의 보급, 일곱째 사상의 자극, 여덟째 개성의 자각등 여덟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특히 한글의 보급이 성경·찬송 등의 번역과 더불어 대중 속으로 파고들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sup>68)</sup> 그의 소설 〈어린 벗에게〉와 〈無情〉 또는 〈사랑〉 〈개척자〉에 나타난 자유연애의 부르짖음과 자아의 각성을 호소함은 모두가 기독교적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는데, 춘원의 이러한 사랑은 그의 작품 전반을 통해 볼 때 그것이 다만 성서적 지식이었고 철저한 신앙이 아니었음은 이것이 민족적 계몽주의 휴머니즘의 결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간다.<sup>69)</sup> 그의 시작품 가운데서도 〈기도〉 〈세가지 맹세〉 〈기쁨〉 〈사랑〉 등 많은 작품들이 짙은 기독교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작되고 있지만 이 역시 철저한 신앙적 시각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후기의 불교작품에 넘어가서는 불교와 기독교적 선을 하나로 보는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sup>70)</sup>

64) 洪一植, 《六堂研究》, 日新社, 1959. p.9.

65) 李敏子, 開化期詩歌와 基督敎, 《開化期文學의 基督敎思想研究》, 集文堂, 1988

66) 洪一植, 앞 책, p.9, 沈載彦, 韓國文學史에 나타난 기독교정신, 교육평론 3 (1969.10)

67) 金永德, 春園의 기독교 입문과 그 思想과의 관계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논총 5권 1호, 1965

68) 金泰俊, 春園의 文藝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 明知大學論文集 3집, 1969.

69) 金永德, 앞 글, 결론 부분.

70) 白鐵, 春園文學과 基督敎, 기독교사상 75호, 1964. 이민자, 앞 책 참고

## 2. 安國善의 〈금수회의록〉

1907년 8 월에는 황성신문에 〈夢潮〉라는 작품이 등장한다. 槃阿라는 필명으로 된 이 작품은 개화운동가 한대흥의 죽음으로 고통을 겪는 정씨부인에게 전도부인이 누가복음서를 건네주면서 기독교에의 입문을 권유하는 데에서 후반부가 이어진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정씨부인이 신봉하게 된다는 개화와 기독교의 본격적 접촉현상이 나타난다.<sup>71)</sup>

〈금수회의록〉은 ‘나’라는 일인칭관찰자가 꿈속에서 인류를 논박하는 금수들의 회의장에 들어가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작품으로 그 우의적 풍자성이 문제되어 한때 금서조치까지 되었던 문제작이다. 이 작품에서는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개, 파리, 호랑이, 원앙 등 각종 동물들이 등단하여 인간세계의 타락상을 날날이 폭로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이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저 우리들이 저주하여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조화로 만드신 것이라 세계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느님이라 하나니...<sup>72)</sup>

사람은 똥보다 더 더러운 일을 많이 하지마는 혹 남의 눈에 보일까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겁을 내어 은밀히 하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몬저 아시고 계시오<sup>73)</sup>

예수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깊이 생각하시오<sup>74)</sup>

창세주를 ‘전능하신 하느님’이라 강조하고 인간행위를 날날이 알고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을 정의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범한 악행도 모두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동물들의 입을 빌어 증언하고 있다. 안국선은 결국 기독교적 윤리관을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동물들의 입을 통하여 인류행위를 규탄한 후 그 자리에 기독교적 이상을 실현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수회의록〉은 게일 (J.S.Gale)이 번역한 《天路歷程》의 영향을 입고 있다. 게일의 〈천로역정〉번역간행이 1895년이므로 〈금수회의록〉이 나오기 십여년 전이며, 주인공이 꿈속에서 여러가지 시련을 겪고 마침내 바라던 천국으로 입성하는 내용을 형상화한〈천

71) 宋敏鎬, 《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研究》, 一志社, 1986, p.125.

72) 安國善, 〈禽獸會議錄〉, 황성서적업조합, 1908, p.4

73) 安國善, 〈禽獸會議錄〉, “ ”, 1908, p.37

74) 安國善, 〈禽獸會議錄〉, “ ”, 1908, p.48

로역정》의 원형사상이 안국선에 의해 현실풍자를 통한 기독교적 이상세계로 승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sup>75)</sup>

### 3. 李相協·李常春의 작품들

이상협 ( 1893 ~ 1957 )의 작품으로는 〈再逢春〉, 〈눈물〉외에 〈몽테크리스토프작〉을 비롯한 〈海王星〉 등이 유명하다. 특히 〈재봉춘〉은 백선달과 허부령의 대조적 성격을 통하여 이참서와 허씨부인 간의 가정적 갈등을 다룬 작품인데, 여기서는 신분제도에 따라 인간을 차별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 평등사상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귀중하고 존중되어야 할 존재임을 백장출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참서의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sup>76)</sup>

〈눈물〉도 주인공 조필환과 서씨부인 그리고 평양집의 갈등관계를 통하여 악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의 화해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적 화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같이 사랑하사 그중 이 전의 악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는 행복을 주시는 것이오<sup>77)</sup>

하느님은 선인이나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사상을 조필환의 장인 서협필의 종교기관 재산헌납, 서씨부인의 장철수에 대한 용서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李常春의 〈朴淵瀑布〉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사랑의 실현을 주제로 하고 있다. 도둑의 피수인 최성일이 이시운의 목숨을 구하고, 서옹의 약혼녀 애경이 강도 고대장의 칼을 맞아 예수교 소속의 남성병원에 찾아가 목숨을 구하며, 애경이 사랑으로 갈대신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감화를 입는 사건의 갈등을 통하여 작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보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적 사랑의 사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끝으로 기독교적 사상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작품으로 崔柄憲의 〈聖山明鏡〉을 들고자 한다. 주인공 信天翁은 어느 가을 성서를 읽다가 전신이 표탕하여 문득 성산에 이르러 유교를 대표하는 眞道, 불교를 대표하는 圓覺, 도교를 대표하는 白雲을 함께 만나 유불도의 교리를 듣고 이를 모두 부정하고, 기독교적 신만이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시무중한 대주재자이며, 인

75) 高廷旭, 〈禽獸會議錄研究〉,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6

尹明求, 〈安國善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74.

76) 한국신소설전집 10 권, 을유문화사, 〈再逢春〉. 洪德昌, 기독교가 한국의 개화 및 학교교육에 미친 영향, 총신대논문집 4 집, 1984

77) 한국신소설전집 10 권, 을유문화사, 〈눈물〉, p.234.

78) 한국신소설전집 7 권, 을유문화사, 1968, 〈박연폭포〉, 누가복음 10 장 30-37 절 참고

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여 네 사람이 모두가 회개하고 기독교도가 되었다는 줄거리로 엮고 있다. 작품의 표면에 지나친 기독교적 신앙이 강조되어 예술성을 도외시한 결함은 있으나 개화기 작품 가운데 드물게 보는 기독교적 문학작품이라는데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sup>79)</sup>

## VIII. 맺는 말

지금까지 <基督敎의 傳來와 韓國文學>이라는 제목으로 작품 중심으로 史的 체계를 세워 보았다. 필자의 분담분야가 개화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문학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체계세워 정리하는 입장이므로 제한된 지면상 깊이있는 언급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우선 밝혀둔다.

<기독교의 수용과 저항>에서는 먼저 허균 등을 통하여 기독교가 이땅에 유입된 과정을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독교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신해교난, 신유교난, 기해교난, 병인교난 등의 박해사건 그리고 기독교도들의 순교를 통하여 점차 기독교적인 기반이 다져지고 기독교문학이 생성하게 되는 과정을 논술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이론>에서는 기독교사상의 정착과정에서 야기된 반기독교사상의 이론을 대표적 자료를 통해 점검해 본 것이다. 실학시대의 대표적 이론인 愼後聃의 <西學辨> 安鼎福의 <天學問答>의 검토에 이어 현종과 고종에 의해 발표된 <斥邪論音>, 황필수의 <斥邪說>, 김치진의 <斥邪論>, 김평묵의 <關邪錄>을 차례로 소개 검토하여 이들 척사의 이론과 기독교 호교론과의 異同관계를 검토하였다.

<기독교의 전래작품들>에서는 기독교의 성장과정에서 남겨진 문헌들, 특히 숭실대기독교 박물관 소장 자료들을 집중 검토하였다. 李承薰의 《蔓川集》(遺稿), 이벽선생의 <몽유록>, 李襲의 <聖敎要旨>, <天主恭敬歌> 柳閑堂權氏의 <유한당언행실록>, 丁若鎰의 <十誠命歌>, 丁若鍾의 <主敎要旨> 玄錫文의 <己亥日記>, 최해두의 <自責> 등을 살피고, 그밖에 번역된 기독교서들을 소개하였다.

<성서번역과 어문학의 발달>에서는 로스목사와 서북청년들의 협력으로 만주에서 간행된 《예수성교전서》, 그리고 李樹廷에 의해 일본에서 간행된 《신약 마가전복음서언해》 등이 신앙적 차원뿐 아니라 민중교화와 우리 문학발달에 이바지한 공로를 들고, 또 《찬송가》의 발달이 시문학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홍길동전·춘향전의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우리 고전 산문의 대표적인 두 작품을 대상으로 작자 및 독자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영향을 입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분석하여 보았다. 홍길동전은 최초의 신도였던 작자 허균과 그 주변인물, 그리고 작품내용과 성서와의 비교를 통해  
79) 崔柄憲, 조선야소교서회 <성산명경>, 1912, 신소설번안소설 4, 아세아문화사. 柳東植, 濯斯 崔柄憲과 그의 사상, 國學紀要, 연세대, 1978.

하여, 춘향전 역시 만화본에서 수산광한루기에 이르기까지 작자와 신앙과의 관련성, 작품 내용의 종교적 형상화 등 다각적으로 기독교적 사상이 침윤되었을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개화기문학과 기독교〉에서는 창가·개화가사·신시 등과 찬송가, 개화기소설의 성서적 표현기법 등이 상호 영향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崔南善과 李光洙의 생애와 작품들이 기독교적 분위기와 영향관계에 있음을 논술하였다. 그리고 신소설 가운데서는 安國善의 〈禽獸會議錄〉, 李相協의 〈再逢春〉과 〈눈물〉, 李常春의 〈朴淵瀑布〉, 崔柄憲의 〈聖山明鏡〉을 예로 기독교의 영향을 언급하였으나, 이 시기에 오면 이미 기독교가 일반화하므로 구체적 언급은 다음 분담자에게 지면을 할애하기로 하고 대미를 삼는다.